

# 이제 그런 일은 또 없겠지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옛것을 봤을 때 꽃대들만 덜렁 솟아 있었던 것 같다. 한데 허투방 사이에 어찌 저리도 곱게 피어난 것일까. 출퇴근길, 화사한 꽃무릇이 금파공고 담장을 따라 나지막한 언덕을 은롱 빨갭게 물들였다. 꽃이라고 어찌 귀가 없을까. 저들도 아마 남북 정상이 열싸안고 70년 적대 관계를 완전 청산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게지. 두 정상이 손을 마주잡고 백두산 천지에서 오른다는 소식이 들었던 게지. 그러지 않고서야 하필이면 그날, 정상회담이 열리던 날에 그렇게 일제히 꽃을 피워 울렸겠다.

수십 개의 팔을 벌렸다가 끄트머리에서 다시 동그랗게 오르려 마치 성화(聖火)인 양 빨간 꽃을 피워 울린 저 꽃무릇, 저들도 텔레비전을 통해 학교 담장 밖으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겠지. 그리하여 너무도 기쁜 나머지 탄성을

지르며 일제히 피어났겠지. 저들이라 해서 사실상의 남북 간 불가침협약으로 전쟁 공포가 사라진다는데 어찌 기쁘지 않았겠나.

참 감동적이었어. 텔레비전 생중계를 지켜보며 한때 가슴을 졸이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게 잘됐다. 마치 '다정한 연인' 처럼 얘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박찬 감동이 몰밀듯이 밀려오는 거야.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 말들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다. 가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런 말들. "불신과 대결의 늪 속에서 과감히 벗어나 이제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민족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 시대로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화답은 또 어떤가. "남북 정상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편하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남북 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맞아. 이런 날이 오리라고 누군들 상상이나 했을까.

사실 끊임없이 반공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는, 북한엔 거지들 아니면 괴물처럼 생긴 빨갱이들만 사는 걸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 그것은 매우 기나긴 세월이었어. 소설가 황석영이 북한에 들어갔다 나 온 뒤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네'라는

제목의 글(정확한 제목은 생각나지 않지만)을 썼을 때에야, 우리는 그곳에도 우리와 생김새가 같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비로소 알 수 있었고.

그러고 보니 이런 일이 생각나네. 30여 년 전 북한 사람을 처음으로 근거지에서 보았던 일. 그땐 우리와 수교하기 전인데 어쩌다 중국에 갈 기회가 있었거든. 북경의 길거리에서 김일성 배지를 가슴에 단 사람을 마주치게 됐는데 엔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그 순간 어찌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일까. 아마도 북한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정보기관 사람이 더 두려웠겠지. 그에 인사 한 번 나뉘 보지 못하고 그저 슬슬 피해야 했으니. 남북 평화가 무르익고 있는 지금, 이제 그런 일은 또 없겠지.

**멈출 수 없는 평화의 시대**

이후 북한 사람을 다시 본 것은 수년 전 금강산에 갔을 때였다. 그들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가슴 한 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그 두께는 상당히 얇아졌던 모양이야. 숙소 근처에서 김일성 동상 보수 공사를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

가 보기도 했으니까. 약간은 떨리는 마음을 안고 그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 보기도 했다. 물론 북한 인부들의 완강한 만류에 사진 찍는 일은 실패하고 말았지만. 이제 남북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오면 그런 일은 또 없겠지. 사진 한 장 찍지 못하고 돌아서는 일은 없겠지.

잠시 지난날을 돌아보면, 북한 정권이 있어 박정희 정권이 공생할 수 있었고 박정희가 있어 국가보안법이 있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수많은 민주 투사들이 고문받고 투옥되고, 때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했다. 우리가 조금 잘살게 됐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희생은 어디에서 어떻게 보상받나. 오래전 얘기지만 '북한산 명태가 맛있다'고 말한 어부가 정보기관에 끌려갔다던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바로 국가보안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찬양고무죄'다. 하긴 정보기관 사람들이 북한산 고기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 여겼던 것일까.

사실 여부가 알 수 없지만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 수십 년 전인데, 어느 역

장이 직원들을 모아 놓고 훈시를 하면서 '김일성이만도 못한 놈들' 이란 말을 했다. 한데 아래 직원이 '김일성을 찬양했다'며 곧바로 정보기관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역장은 구속됐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못 믿겠지만 나는 이게 당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말처럼 '멈출 수 없는 평화의 시대'가 되면 이제 앞으로 그런 일, 또 다시 일어나진 않겠지.

**판문점의 봄 평양의 가을**

첫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의 도보다리 대화는 아직도 뇌리에 깊이 남아 있다. 그때 그 장면은 '그 모습만으로도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한가롭게 지저귀는 새 소리를 배경 음악으로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웃으면서 주고받는 이들의 대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한 편의 '무성영화'를 보는 듯했다고 평하기도 했다. 앞으로든 그런 감동이 계속해서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

다들 보고 듣고 했을 테니 이번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를 여기에서 다 열거할 필요는 없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비

핵화에 대해 처음 육성으로 언급한 일만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왜냐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주 의원들을 향해 (비핵화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김정은의 육성으로 들은 적이 있느냐"며 강한 불신을 나타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김 위원장의 육성이 나왔으니 저들 야당은 머쓱해질 만도 한데, 아직도 트집 잡기에 여념이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도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듯이 한반도 평화의 시계는 돌아갈 것이다.

참 잘됐다. 백두산 천지에서 우리 대통령 내외가 생수병에 물을 담은 모습도 보기에 아주 좋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을 방문한다니 이 또한 좋은 일이다. 정상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한평생 마주보지 못한 채 얻은 꽃을 그리워하고 꽃을 얻을 그리워하는 꽃무릇처럼, 우리도 남북으로 갈라진 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 어딘가 이렇듯, '판문점의 봄'에 뿌린 씨앗이 이제 '평양의 가을'에서 열린 열매로 영글고 있으니, 상사화처럼 보고 싶어도 그저 가슴속에 담아 두고 꼭꼭 잡아야만 하는 그런 일, 이제는 또 없어야겠지.

# 10월 북미정상회담 속도 낸다

미 폼페이오-북 이용호 오스트리아 빈서 회담 추진

비핵화 관련한 북한 최고지도자의 진전된 언급이 포함된 남북 평양 공동선언이 채택되기가 무섭게 북미대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19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나서는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북미 협상과 뉴욕 유엔총회 계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장관 회담 추진 사실을 밝혔다. 둘 중 어느 쪽이 먼저일지 불확실하지만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이 29일로 예정돼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주에는 고위급 북미대화 재개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지난달 말 폼페이오 장관 방북이 취소되는 곡절을 겪었음에도 이처럼 신속하게 북미 대화가 재개되게 된 것은 지난 5일 우리 측 대북 특사가 방북하고 돌아온 이후 남북미 간 긴밀한 3각 조율의 결과로 보인다. 특히 비건 대표는 10~12일과 15~16일 등 이례적으로 두차례 서울을 찾아 이

러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강하게 요구해온 중전선언과 그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를 맞바꾸는 합의가 북미 장관급 또는 협상 수석 대표급에서 이뤄지면 북미 정상이 워싱턴이나 제3국에서 만나 그것을 공식 발표하는 그림이 가능해 보인다.

외교가는 북미 정상회담 후 상당한 휴지기에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 협상의 본 게임이 시작될 '북미 빈 대화'에 주목하고 있다. '빈'에 북한이 동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이 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비건 대표와 최섉희 외무성 부상 또는 다른 북측 인물이 만나게 되면 평양 공동선언의 비핵화 관련 내용에 입각해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비핵화 관련 내용은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 하의 동창리 엔지니어링 및 미사일발사대 연구 폐기"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두 가지다. 후자에는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연합뉴스

러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강하게 요구해온 중전선언과 그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를 맞바꾸는 합의가 북미 장관급 또는 협상 수석 대표급에서 이뤄지면 북미 정상이 워싱턴이나 제3국에서 만나 그것을 공식 발표하는 그림이 가능해 보인다.

외교가는 북미 정상회담 후 상당한 휴지기에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 협상의 본 게임이 시작될 '북미 빈 대화'에 주목하고 있다. '빈'에 북한이 동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이 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비건 대표와 최섉희 외무성 부상 또는 다른 북측 인물이 만나게 되면 평양 공동선언의 비핵화 관련 내용에 입각해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비핵화 관련 내용은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 하의 동창리 엔지니어링 및 미사일발사대 연구 폐기"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두 가지다. 후자에는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평양 시민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평양 시민들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야 투자자 모집**

경/공매 입찰/낙찰물건  
근저당/소유권이전으로 법적보장!  
(주)오천경매,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7시~9시

남부대학교 삼관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7시~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펜션·가든 부지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펜션·전원주택지**

- 신안군 중도면 방축리 옐도라도인근 602㎡ 5천만원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900만원
- 전북 순창군 북흥면 지선리 대지 433㎡ 3천만원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입구 1868㎡ 초집등적합 1억3천

**주택·원룸·아파트**

- 급매 경기 수원시 장안구 45평형아파트 분양 5억9천 매도 4억9천
- 월산동 농성초 건너편 소방도점 대지 149㎡ 2중주택 115㎡ 1억3천
- 서구 송촌동 2중 주택 땅 105㎡ 새 주택 118㎡ 운전저수지부근 2억7천
- 광산구 송산동 땅 1054㎡ 집 100㎡ 전원생활적합 3억2천
- 아파트 서구 농성동 제일파크 14층 105㎡ 리모델링완료 1억7천

**투자·매도·교환**

- 무안 해지면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신고 3억5천 매도 3억
- 영광 흥농읍 주거지 5223㎡ 공시지가 6700 매도 8500
- 나주시 동수동 자연녹지 12076㎡ 교통 좋음 14억7300
- 동구 용산동 대지 등 2449㎡ 다세대·빌라·사할 등 적합 10억 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7천
- 유동 소방도 상업지 331㎡ 상가·원룸·빌라 적합 4억7천
- 금남로 57구역 대로점 상업지 364㎡ 16억
- 쌍촌동 소방도 땅 118㎡ 2중 상가주택적합 1억3천

**상가건물**

- 고흥 나로도인근 펜션 땅 6891㎡ 건평 267㎡ 객실10, 은행3억, 7억5천
- 여관 목포시 옥암동 땅 439㎡ 건물 989㎡ 객실26 은행 4억 매도 7천만
- 북동 토지 538㎡ 건물 1933㎡ 은행 9억2천 매도 1억 6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점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 순천만 대대동 펜션 땅 332㎡ 객실8, 관리실, 은행3억 영업적합 3억천
- 목포시 북항 푸드타운 1층 91㎡ 은행 9천 매도·교환 3억4천
- 산수오거리 부근 땅 494㎡ 건평 1996㎡ 병의원적합 20억
- 양림동 땅 274㎡ 건물 751㎡ 요양병원할 건물과 교환가 16억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증축해서 요양병원적합 65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